

무주 반딧불축제 내실 다진다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내달 1일~9일 축제기간
프로그램 일정 등 점검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상황보고회가 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상황보고회가 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속팀장, 그리고 반딧불축제지원단 각 분야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현황, 축제장 공간배치, 편의시설 및 환경조성, 축제운영 및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축제가 안으로부터 흥보가 잘 돼서 주민들이 먼저 설레고 즐겨야 밖에서도 알아주는 축제,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축제, 가보니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다"라며 "준비, 홍보, 안전, 내실 등 대표축제로서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철저하게 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반딧불축제 때 반딧불 농·특산물도 알리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농·특산물 판매부스는 상품 품질과 가격 균일화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라며 "보이지 않는 사

소한 부분들까지 모여져 반딧불축제, 나아가 무주의 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모든 부분에서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주최 무주군,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간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반딧불이의 군무를 직접 보는 △반딧불신비탐사와 대낮에도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딧불나라관, 자연에서 별자리를 찾아보는 △반딧불소풍, 반딧불이 먹이인 토종 다슬기와 치어를 방류하는 △남대천 생명+, 무주의 전통놀이를 즐기는 △낙화놀이와 풍동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연된다.

이외에도 어린이 방문객들을 위한 △어린이나라(건축사무소, 119안전센터, CSI과학사대, 동물병원 등 직업 체험), 그리고 △글로벌태권도시범을 비롯한 무주재능지랑, 반딧불동요제, 송소희 &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을 마련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축제지원단 강찬수 단장은 "올해는 신비탐사 등 주요 프로그램의 규모는 키우고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 참여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참가객들 모두가 고향의 숲 반디가 노니는 세상에서 맘 편히 즐기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꽃잔디 동산 위에서 먹는 연꽃두부

진안고원 농가맛집 조성
친환경 지역농산물 이용
농촌형 외식공간 '눈길'



진안읍 연장리 꽃잔디 동산에 위치한 '연꽃 두부 농가맛집'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오픈한 연꽃 두부 농가맛집은 2018년 진안고원 농가맛집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가맛집을 통해 지역의 향토음식을 알리고 직접 재배한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밥상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농촌형 외식 공간이다.

연꽃 두부 농가맛집 메뉴로는 연잎밥 정식, 연잎 두부보쌈, 순두부 등이며, 산 좋고 물 좋은 진안고원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두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연잎차, 아카시아, 팥공, 할수수 등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어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보는 물론 소비자들의 입맛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애숙 연꽃 두부 농가맛집 대표는 "진안의 정기를 담은 정직한 먹거리와 정겨운 맛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고 싶다"면서 "진안에서 재배한 콩과 자연재료를 사용해 진안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발전시켜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향토음식 계승과 발전은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농가맛집의 역할 정립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여름철 안전관리 합동점검

장수군은 6일 여름철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 1개소와 야영장 2개소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과 장수군 관리부서, 안전관리지문단으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장은 공사장 배수시설 관리상태, 지하수 유출 여부, 공사장 안내표지판·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안전 조치 여부, 절개지 붕괴·토사 유출 여부 등, 야영장은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설치, 안전인증 전기 및 가스용품, 방수형 누전차단기,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긴급 방송시설, 조명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 안전 위험 등 중대한 결함 이 있는 시설은 시정 명령을 한 후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야영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장수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움직이는 자치행정 실현 '첫 걸음'

황인홍 무주군수, 읍면 순회
마을구심체와 간담회 실시
민선7기 발전 방안 머리맞대



무주군은 각 읍면 장날에 맞춰 6일과 8일, 10일 마을구심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각 읍면 장날에 맞춰 6일과 8일, 10일 마을구심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간담회 첫 날인 6일 무주읍과 적상면을 찾아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청년회장 등을 만났다.

황인홍 군수는 "이 시간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자리고, 움직이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이라며 "무주를 무주답게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대장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여정 속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마음과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무주는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무주"라며 "그 길을 내고자 마련된 자리인 만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민선 7기 무주군에 바라는 점을 비롯해 군정과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오늘은 앞으로 4년, 나아가 무주군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의

견을 나누는 자리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며 "모쪼록 우리 군민들이 먹고사는 게 좀 나아지고 마을과 지역도 살기가 좀 편해지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민선 7기 무주군 마을구심체와의 간담회는 8일에는 설천과 무풍에서, 10일에는 안성과 부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정에 따라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실과 소장들이 배석해 원활한 소통을 돕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청 역도팀이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2018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진안 역도팀, 땀으로 일궈낸 '금빛 물결'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대회서 금 3·은메달 3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팀이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2018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팀내 에이스인 유동주 선수는 이번 대회 85kg급에 출전해 인상 166kg를 들어 올려 대회 신기록을 달성했고, 용상에서 185kg, 합계 351kg을 들어 금메달 3개를 싹쓸이 했다. 또 박민호

선수는 이번 77kg급 대회에 출전해 인상 141kg로 2위, 용상 176kg로 2위, 합계 317kg로 2위에 올랐다.

진안군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 최병찬 감독은 "오는 10월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역도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백운 가설극장 성황

진안 백운 가설극장이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백운면사무소 강당에서 지역민과 피서객, 귀향인들이 함께 모여 정돈 나눈 영화도 관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백운 가설극장은 오래 전 시장이 형성된 백운면 원촌마을의 소재지에 위치하며 장이 서지 않은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장터가 주민들에게 멋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 백운 가설극장으로 재탄생 시켰으며, 이번 행사는 폭염 등으로 장소를 면사무소로 옮겨 치러졌다.

주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화 '택시운전사', '신과함께 2편'이 상영돼 5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영화 상영 전 백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래머로 갖고 뒀던 지역민들의 난타 공연과 밴드 공연이 선보이며 깊어가는 한 여름밤을 즐겼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할밥과 옥수수, 팝콘 등 먹거리와 간식을 제공하여 더욱 풍성한 여름잔치가 됐다.

송준섭 백운면장은 "문화 공간이 변변치 않은 면민들에게 모처럼 함께 영화를 보며 무더위에 지친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다"며, "옛 장터를 활용한 가설극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